

초여름의 방역관리

원 송 대
((주) 대성미생물연구소 상무)

1. 일반관리

사료가격 인상은 생산 원가 상승을 연쇄하여 이윤폭의 축소를 가져왔다.

이런 시점에서 흑자 경영 유지에 초점은 필연코 질병 방역과 관리 개선으로 생산원가 및 비용을 절감 하는데 놓여진다.

양계 경력이 오래다하여 자만치 말고 경험과 지식을 합리적 경영면으로 총 집중해야 한다. 현실적인 이 역경을 잘 타개 하는 자만이 내내 번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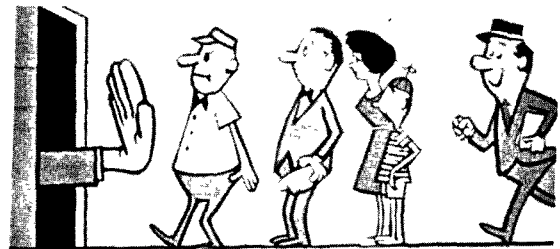
닭은 생명체이다. 위생적인 관리는 생산능률 향상으로 보답된다. 여기 방역 관리상 요점을 간추려 실천을 권한다.

1) 입추전 3주간 계사를 비워라.

소독된 상태에서 최소 3주간 계사를 비우면 대부분의 병원체나 기생충이 죽거나 약화된다. 그러나 그동안 오물제거→세척→건조→소독약살포→환기건조등의 순서를 실시한후 3주간 비워 두라는 것이다. 또 쥐나 야생동물, 소독하지 않은채 사람(관리인)이 출입하는 것도 엄격히 방지한다.

2) 철저한 격리 사육.

계사간의 거리는 30m 이상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실정과는 거리가 멀지만 최소한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병아리의 주령이 서로 다른것을 같은 수용사에 넣지 말고, 비록 주령이 같더라도 생산된 부화장이 서로 다를때도 역시 격리사육 하는 것이 좋다.



방문객 출입금지

3) 신선한 공기는 최선의 약.

닭의 질병은 5할이 호흡기 점막을 통해 침입된다. 이 주된 요인은 탁한 공기에 있다. 호흡기 점막은 질병 감염에 대한 바리

케이트로서 건조하거나 먼지가 많거나 암모니아 개스가 많으면 질병 방어 능력이 상실된다.

4) 건강 관리에 약은 절대 조건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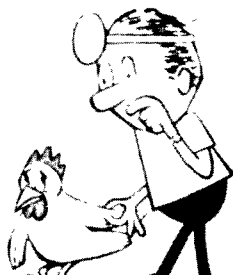
항생제 남용은 균의 내성을 길러 질병 발생시 치료가 힘들어진다. 약은 정확한 진단아래 정량을 용법대로 사용해야 효과를 본다. 무분별한 투약은 오히려 부작용만 유발한다. 소화 기능이나 신진 대사를 방해하여 어린 닭의 건강을 해치는 예를 종종 본다. 약을 사용하기 앞서 위생관리를 먼저 개선하자.



5) 정확한 진단을……

경험을 통한 치료는 50%정도 성공적이고 50%정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들이 이야기 한다. 발병 상태가 비슷 하면서도 병원체는 전혀 다른 경우가 닭 병에는 허다

정확한 진단



하다.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얻는다면 약값 절약은 물론 병의 확산을 예방할수 있다. 국립 가축위생 연구소나 가까운 전문수의사와 상의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투약과 예방 조치를 강구한다.

6) 스트레스를 경감하자.

예방접종, 부리자르기, 이동, 밀사, 피성(소음), 부적합한 온도 및 습도, 먼지, 환기불량, 거치른 취급, 사료변동, 단수... 등 스트레스 요인은 수도없이 항상 일어난다. 성공적인 관리란 이런 스트레스 요인을 얼마나 세심하게 체크하고 또 이 피해를 얼마나 잘 경감시켜 주느냐에 달려있다. 비타민 전해질 광물질등은 스트레스의 피해를 항생제와 함께 경감시켜 준다.



7) 깨끗한 물은 값싼 영양제.

닭 체중의 50~70%, 계란의 60%가 수분이다. 물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다. 물이 불결하면 장기능 장애로 설사를 일으키고 각종 병원균이 전파된다. 사료가 섞이거나 변질된 물은 매일 갈이주고 급수기도 자주 청소하여 깨끗한 물을 닭에게 공급하므로서 건강하게 잘 자랄수 있다.

8) 예방 접종은 시기를 놓치지 말라.

계획된 접종 시기를 놓치면 질병 침해는

물론 부적당한 시기의 접종으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된다. 백신의 보관, 취급 및 용법 용량을 지시대로 준수하고 닭의 상태가 양호할때 접종하도록 한다. 일반 백신의 2주령 미만의 병아리에 접종하는 것은 면역 효력이 낮은 편이다. 모체 면역과 중화되기 때문이다.

최고 산란 지속시 접종하는 것도 산란저하를 가져오므로 가능한 한 산란전 백신 접종을 완료토록 스케줄을 짜야 하겠다.

9) 질병 매개체의 근접방지.

닭 질병은 절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가장 일반적인 질병 전파는 균의 수평 확산에 의한다. 닭에서 닭으로, 계사에서 계사로, 공기를 통해, 쥐를 통해, 사람을 통해, 사료나 물을 통해 매개된다. 소독 발판은 멎으로 둔것이 아니다. 장화는 무좀에 걸리라고 있는 것이 아닐진대 수평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런 기초적인 위생은 꼭 지켜져야 된다. 양계장이 쇼윈도가 되면 그 사업체는 곧 망할 징조이다.

10) 지방계를 만들지 말자.

시중에서 요사이 팔리는 사료가 모든 품종에 적합한 사료만은 아니다. 고산란성 닭일수록 사료 배합이나 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중 한 예가 지방계가 되는것이다. 영양의 불균형이나 섭취량의 차질 때문에 지방계가 발생되나 육성 기간중 체중 조절이 잘 안되어 대부분 발생된다.

오늘날 채란계에 성공 하려면 육성기간중 체중 조절법을 필히 배워야 한다.

2. 질병관리

1) 마렉병

양계인치고 이 병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다른 질병과 이 병을 명확히 구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리만 절고 쓰러지면 마렉으로 오인하는 사람들이 많다. 몇년 전만해도 무서운 폐사율

을 보이며 전국을 휩쓸던 병이었는데 이제 백신의 개발과 국내 수입으로 거의 피해가 방제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비싼 백신 접종을 했는데도 마렉병이 발생 한다고 한다. (비록 적은 퍼센트지만) 모든 예방 접종이 100% 방어율을 갖는것이 아니다. 5~10%의 편차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 발생 병아리가 건강하고 활력이 있어야 백신 접종 효과가 좋으며 부화 과정중 씨알디, 쌀모벨라나 배꼽병 같은 질병이 잠복 또는 감염 될때는 백신 효과가 소실되고 만다. 그리고 비록 건강한 병아리에 접종 하더라도 최소 2주까지는 위생 관리에 힘써야 좋은 면역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약의 보관, 취급 및 주사기 소독이 중요하며 접종 인원의 주사 숙달도 문제이다. 정확한 양을 천천히 확실하게 주사하도록 한다. 증상은 신경성으로 신경에 염증을 일으켜 다리를 절고 날개를 늘어뜨리는 형이 있고, 신장, 간, 비장, 생식기, 근육, 심장등에 임파구의 이상 비대를 나타내는 형도 있다. 보통 6주령에서 20주령 사이에 발생하며 폐사는 어린 닭에서 심하다. 치료 대책은 없고 환기등의 환경 위생 개선으로 예방에 힘써야 한다. 특히 성계와 어린 병아리의 혼사는 마렉크 병에 잘 걸리는 원인이 된다.

2) 포도상 구균증

속칭 빠다리 병이나 회저성 피부염이 이에 속한다. 일반 증상은 3~9주령 닭에서 날개 밑에 포도주색의 수포가 발생한다. 심한 경우 다리, 발바닥에 수종이 생긴다. 곁하여 심한 빈혈도 보인다. 치료는 비소제를 50갤런의 물에 1온스를, 물에 녹여 먹이거나 에리스로 마이신 제제를 사료에 섞어 3~5일간 급여하면 효과적이다. 특히 여름철 밀사를 피하고, 음수는 청결하게, 젖은 깔짚은 새 것으로 바꾸어 준다. 또 환기를 촉구하여 과습을 방지하고 바닥에 거친 돌이나 철사 같은 유해물을 제거

하여 발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대장균증

대장균은 장내에 서식하는 필요하면서 해로운 미생물이다. 어린 닭에서 호흡기 증상과 더불어 황록색 설사를 하며 20% 가량의 폐사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해부하면 복강이 섞은 물로 팽팽하게 차 있는 것을 볼수 있다. 이것은 대장균에 의한 패혈증이다. 대장균은 이외에 배꼽병, 관절염등의 질환을 유도하여 발생시킨다. 감염의 가장 주된 요인은 종란 취급이 비위생적이거나, 부화장이나 부화시설이 불결할 때이다. 예방은 사료 톤당 100g의 테라마이신을 섞어 주거나 후라 조리돈을 0.04% 첨가하여 일주일간 급여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발병후, 파급 속도가 빨라 제압하기는 어렵다. 보다 더 확실히 하려면 약제 감수시험 후 약제를 선택한다.

4) 콕시듐

원충류인 콕시디아가 장벽에 감염하여 소화 기능이 저하되는 병이다. 이 콕시디아 원충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 닭이 전혀 감염 안되도록 하는것은 불가능하다. 대부분 시판사료(부로일러, 초생추, 중추)에는 항콕시듐제가 첨가 되었으므로 어릴때 이 병에 면역을 갖도록 한다. 그런데 단순한 사료첨가 항콕시듐제로 9가 지나 되는 콕시듐 원충(아이메리아)에 대해 모두 면역을 형성할수는 없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료 섭취 감소로 첨가된 항콕시듐제의 섭취량이 줄거나, 장마철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오-시스트가 창궐할 경우 어쩔수 없이 이 병이 만연하고 만다. 일단 병이 발생하면 설파제를 사료나 음수에 0.02% 섞어 3~6일간 급여하되 2~3일간 계속 급여한후 1~2일간 선다음 약의 농도를 1/2로하여 2~3일간 또 급여한다. 이때 비타민AD₃E를 함께 급여하면 병해를 줄일수 있다.

5) 씨·알·디

우리 주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일명 스트레스 병이라고도 한다. 환경 급변, 기후급변, 접종, 기생충 및 다른 질병에 의한 스트레스가 지나간후 잘 발생된다. 눈물을 흘리고 골골 또는 껍뻍하는 피성을 낸다. 전형적인 증상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여 씨·알·디라고 쉽게 판정할수도 없는, 진단이 어려운 조심스런 질병이다. 이 병도 역시 치료보다 예방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이 병은 단독 감염보다 다른 병과의 복합 감염이 보다 더 골치아프다.

치료나 예방에는 머크라이드 계통의 약이 가장 유효하나 복합 증상의 경우 다른 항생제와 병용해야 한다. 또 비타민AD₃E를 함께 급여하여 병해를 감소 시키고 회복을 빠르게 하는것도 바람직 하다.

초여름 방역 관리는 한해의 성공을 약속하니 쉬운점부터 착실히 고쳐 나가므로써 무병의 양계장이 되길 바란다.

양계경영일지

= 판 매 증 =

정 가 350원
회원특가 300원

본회로 신청하실 때는 산란계용,
육용계용을 명기하여 주십시오.